

현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실과 실태

박정순

노동과 건강연구회 교육실장



1. 시작하며

올해 6월29일, 계속되던 장마가 잠시 거치고 따갑게 내리쬐는 한여름날, 모란공원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의 합동 추모제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루어졌다. 문송면군이 모란공원에 안치된 이듬해부터 매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단체,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여 앞서간 노동형제들을 추모하고, 이 땅에서 산업재해가 추방되는 그 날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60년대 아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매년 수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지만, 사회적 관심도 해결노력도 부진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으로 떨쳐나선 이후, 88년 15살의 문송면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은 노동자가 지금까지 위험작업을 아무런 방호조치도 없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으로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들이 이 땅의 심각한 산업재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조직적 활동을 하도록 추동했고, 산업안전보건활동이 노동조합의 중요한 일상활동으로 자리잡게 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즉 더 이상

산업재해가 경제발전과 자본주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전사회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2. 현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과 교육실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한층 발전되면서, 대기업 중심이지만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사후보상활동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상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부분적이지만 단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뛰어넘어 제도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대활동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산재추방 운동(산업안전보건활동)이 저임금, 장시간노동등 노동조건의 개선투쟁이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존권수호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실천활동으로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산안담당자 선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3개 산별연맹 및 그룹조직 중 7개 조직(건설, 금속, 병원, 자동차, 민철노련, 한국통신, 현총련)의 가맹조직과 21개 지역조직 중 5개지역만이 산업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했으나 포항을 제외하고는 전임자가 없으며, 900여개 단위 노동조합중 산업안

전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은 100여개에 불과한 현실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 중에도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부가 있는 경우에도 전임자가 대부분 비상근이라 작업시간중 수행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조사나 일상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산재보상문제나 교육홍보등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은 위험·유해작업과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비롯해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책활동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예방활동중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임금인상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임금인상요구안을 조합원 모두의 결의로 모아내기 위하여 조합원교육을 실시하듯,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조합원의 힘으로 힘차게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선전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별로 사업주, 노동조합, 전문단체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동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시 노동자의 특별교육을 연 16시간 이상'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94년 전노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안전교육은 거의 대부분 부실을 면치 못하

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효과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회사측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구 분	비율(%)	업체수
① 실시하지 않고 있다	17.2%	16
② 월 2시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7.2%	16
③ 매일 아침 안전조회29.0로 대체하고 있다	29.0%	27
④ 부정기적으로 집체32.3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3%	30
⑤ 기타	4.3%	4
합 계	100.0%	93

(표2) 회사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

구 분	비율(%)	업체수
① 사고 발생 유형 및 예방	36.4%	28
② 안전장치 및 안전작업 방법	35.1%	27
③ 무재해추진기법	9.1%	7
④ 사용하는 물질 및 직업병	5.2%	4
⑤ 산업안전보건법	2.6%	2
⑥ 기타	3.9%	3
⑦ 무응답	7.8%	6
합 계	100.0%	77

(표3) 회사측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효과

구 分	비율(%)	업체수
① 조합원들에게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3.9%	3
②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59.7%	48
③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0%	20
④ 무응답	10.4%	8
합 계	100.0%	77

* 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업안전보건국, 1994

즉,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현장내 직·반장들이 아침조회 시간에 5분씩 실시하는 '위험예지훈련'이나, 일하다가 사고나면 자신만 손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라" 등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올바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

〈표4〉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중 조합원교육

구 분	비율(%)	노조수
① 작업 시간 중에 실시하고 있다	24.7%	23
② 작업 시간 외에 실시하고 있다	10.8%	10
③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64.5%	60
합 계	100.0%	93

〈표5〉 간부대상 교육

구 분	비율(%)	노조수
① 작업 시간 중에 실시하고 있다	12.9%	12
② 작업 시간 외에 실시하고 있다	8.6%	8
③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78.5%	73
합 계	100.0%	93

〈표6〉 노동조합 교육내용

구 分	비율(%)	노조수
① 산업재해의 실태와 발생원인	27.3%	9
② 검진결과 및 직업병	15.2%	5
③ 재해 보상에 대하여	15.2%	5
④ 산업안전보건법	15.2%	5
⑤ 촉진결과 및 작업환경	12.1%	4
⑥ 기타	9.1%	3
⑦ 무응답	6.1%	2
합 계	100.0%	93

〈표7〉 교육시 어려운 점

구 分	비율(%)	노조수
① 교육시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45.2%	42
② 전문강사가 없다	29.0%	27
③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다	8.6%	8
④ 기타	4.3%	4
⑤ 무응답	12.9%	12
합 계	100.0%	93

〈표8〉 교육시 매체활용정도

구 分	비율(%)	노조수
① 강의 중심으로 한다	63.6%	21
② 비디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5.2%	5
③ 슬라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6.1%	2
④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9.1%	3
⑤ 무응답	6.1%	2
합 계	100.0%	93

* 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업안전보건국, 1994

노동조합이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강사 및 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주제로 노동조합이 ‘매달 또는 분기별로 2시간 교육’을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아 실시하는 등 노동자대중을 산재추방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용 선정에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안산의 중소기업 D노조의 경우, 매월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회사측이 비용은 부담하고 노동조합이 강사 및 내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조합원을 3번에 나누어서 교육하는데, 생산라인을 모두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교육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이 큰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와 달리 조합원교육을 위해 조합내에 산업안전교육담당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인 H노조의 경우는, 한 주제로 수십명을 단위로 전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몇달이 걸렸다고 한다. 교육위원,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등을 다른 단체의 강사훈련이나 자체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내용과 역량을 준비하였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도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요통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과로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직업환경개선등과 노동조합의 참여, 노동법개악과 노동자의 건강, 신경영전략과 노동자의 건강”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하는 일상활동내용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주제로 노동조합이 ‘매달 또는 분기별로 2시간 교육’을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아 실시하는 등 노동자대중을 산재추방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안전교육원은 정부출연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의 부속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통신교육 등을 진행하며, 노동자교육으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단체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간호협회등이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본부는 노동교육의 하나로 산업재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노조간부들이 회사측과 함께 간혹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위 단체의 주교육대상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사내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노



노동과 건강 연구회는 노동자를 산재추방운동들의 주체로 설정한다.

동자들을 산재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노동자들을 유해·위험 설비처럼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다음으로, 노동과건강연구회(이하 노건연)는 88년에 설립하여 노동자가 산업재해추방운동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중심적으로 벌여왔다.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부간부, 산재추방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이 매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을 실시하다가 90년부터 현장간부단체 활동가의 훈련을 분화시켜 '전국노

조간부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전노협이 탄생된 이후부터 '전국산업안전보건간부교육'은 조직적 전망을 가지고 전노협이 주최하고, 노건연은 교육내용을 후원하면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다양한 요구와 준비정도에 따라 내용을 분화하고 실습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

90년부터 전국적으로 산재추방운동단체들이 탄생하여 교육의 대상, 목표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의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과정, 작업환경개선활동에 노조의 참여방안등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10여년의 역사와 성과가 축적되고, 매년 산업재해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만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산재추방운동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노건연을 비롯하여 산재추방운동 단체들이 산업보건, 산업안전적 측면의 전문적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여 현장성 있는 생생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건연은 부설 '한국산업안전보건 교육센터'를 설립하면서 경험많은 현장간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직접 교육과 교육내용 마련과정에 함께 활동하고 있다.

3. 앞으로의 방향

산업안전보건교육이 10여년의 역사와 성과가 축적되고, 매년 산업재해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만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산재추방운동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 내용을 소식지나 노보등에 적극 홍보·선전하고, 조합원과 함께 대책활동, 연대활동, 조사활동등 일상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노동자계급이 산업재해추방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적극 나설 때 천이백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주는 실질적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사후보상보다 사전예방활동을 추진하여 현장에서 산업재해 추방하고, 경제적 손실도 줄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불가능한 중소 사업장에 대한 교육활동방침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현장간부들이 조합원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표준화된 교육내용과 비디오교재등의 다양한 교육매체개발등을 요구해왔지만, 인적·물적자원의 부족등으로 노건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노건연이 부설로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그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교재 표준화 작업등으로 교육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문단체의 활동이 산업안전보건활동 내용을 노동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형식을 개발하여 올바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현장간부와 전문단체와의 상시적인 연대와 결합이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내용과 현장의 실천활동을 더욱 발전시켜낼 것이다. ♦♦♦